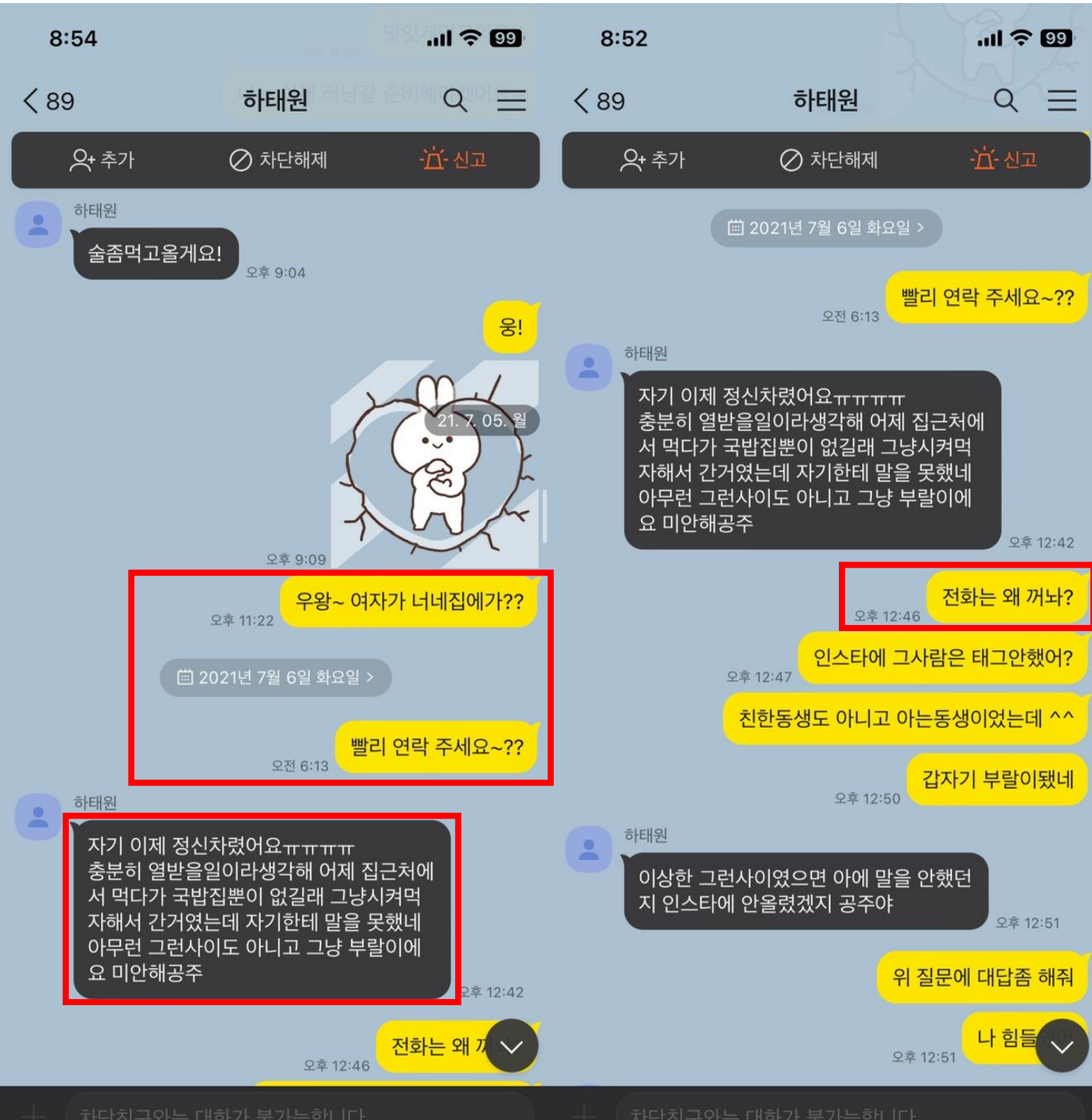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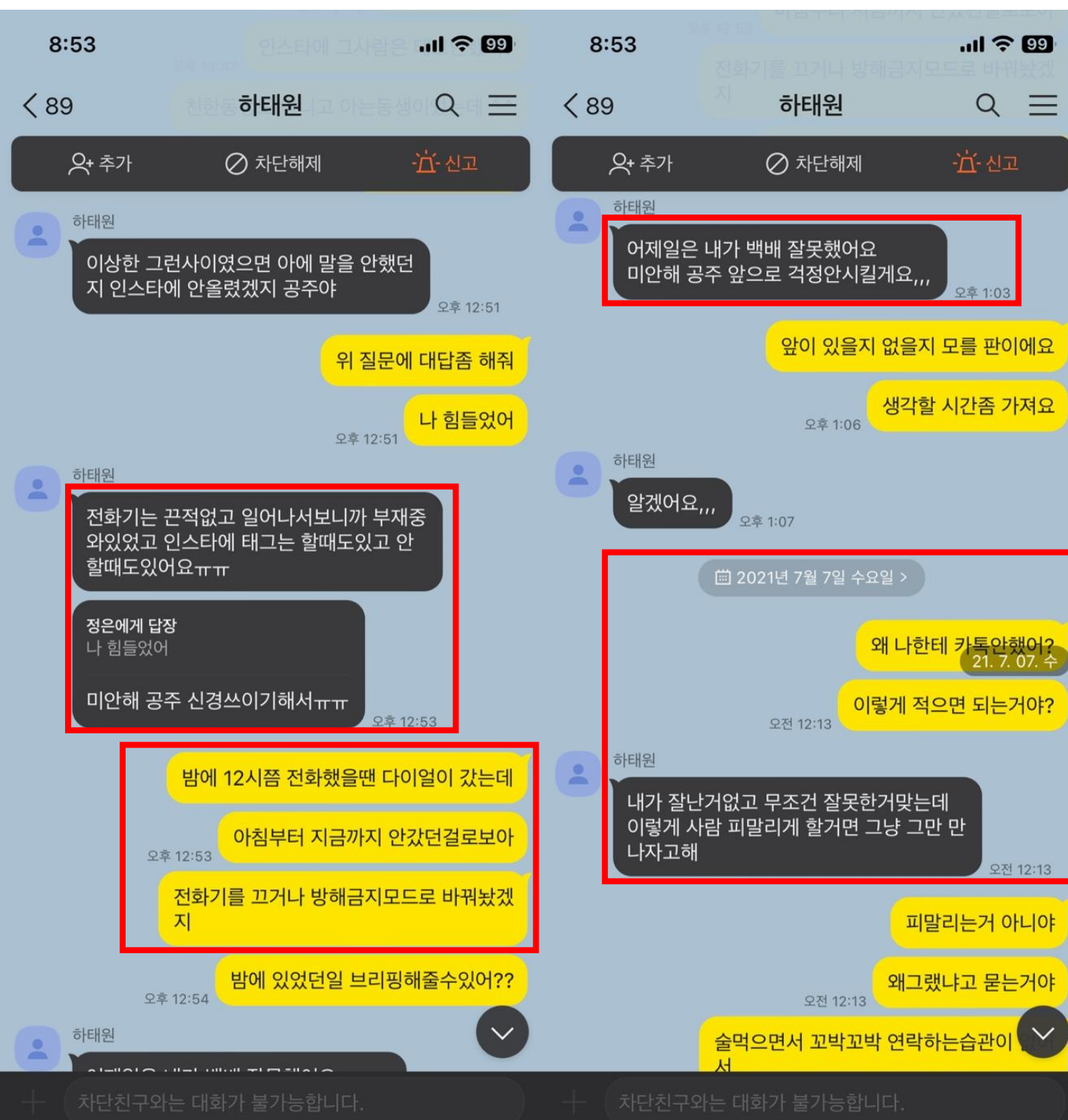


[연락 두절되고 다른 여자와 단둘이 밤을 지냈던 피고 -1]



피고는 실제로 2021.7.5.밤~7.6. 아침까지 밤새 연락두절이 되고 다른 여자와 단 둘이서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밤을 지새운 사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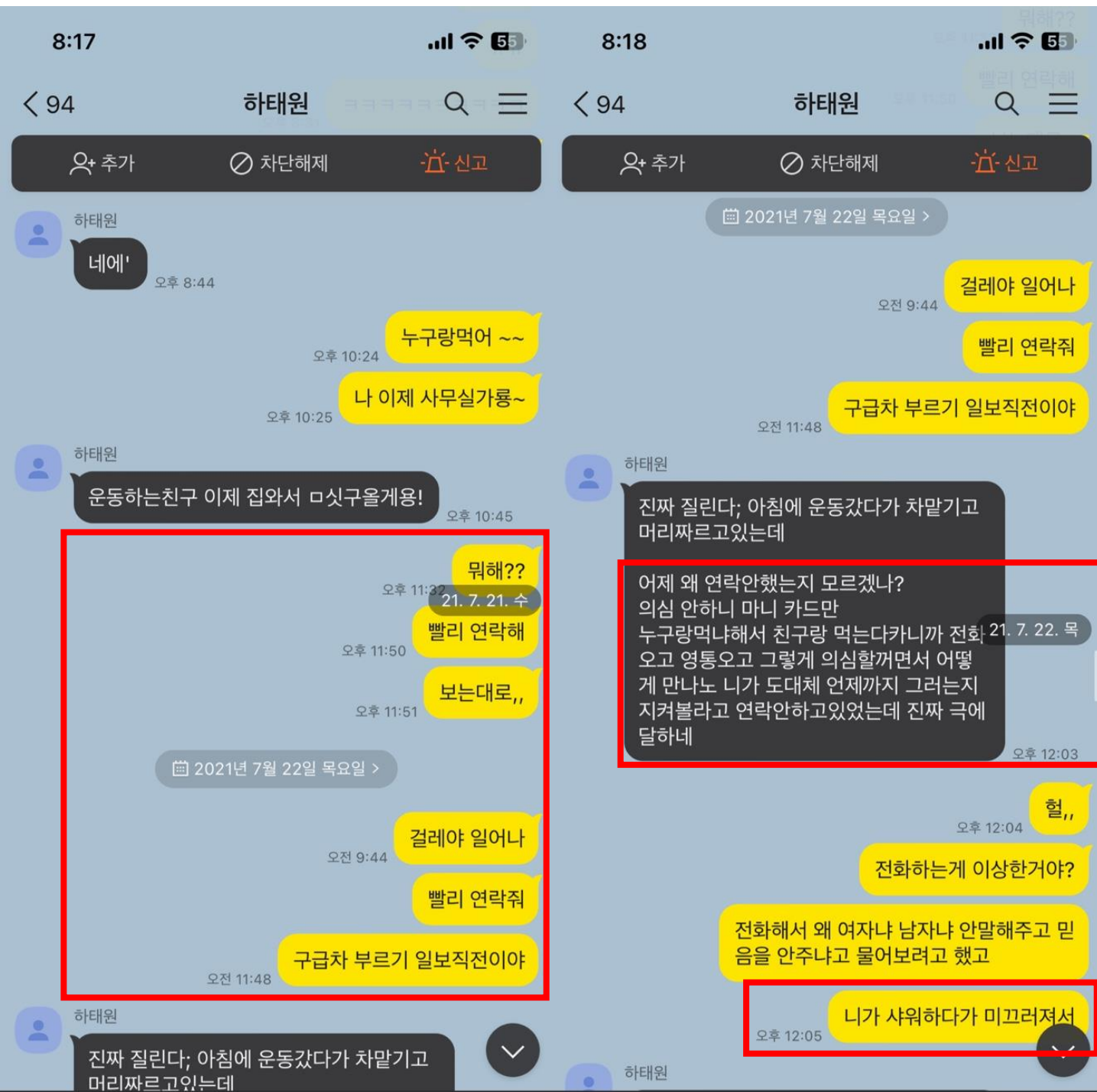
[연락 두절되고 다른 여자와 단둘이 밤을 지냈던 피고 -2]



피고가 다른 여자와 함께 밤을 지낸 사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를 했던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라며 원고가 피고를 오해했다고 수차례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9.1. 피고 답변서 2면에서도 동일하게 기재)

[고의로 밤새 연락두절했던 피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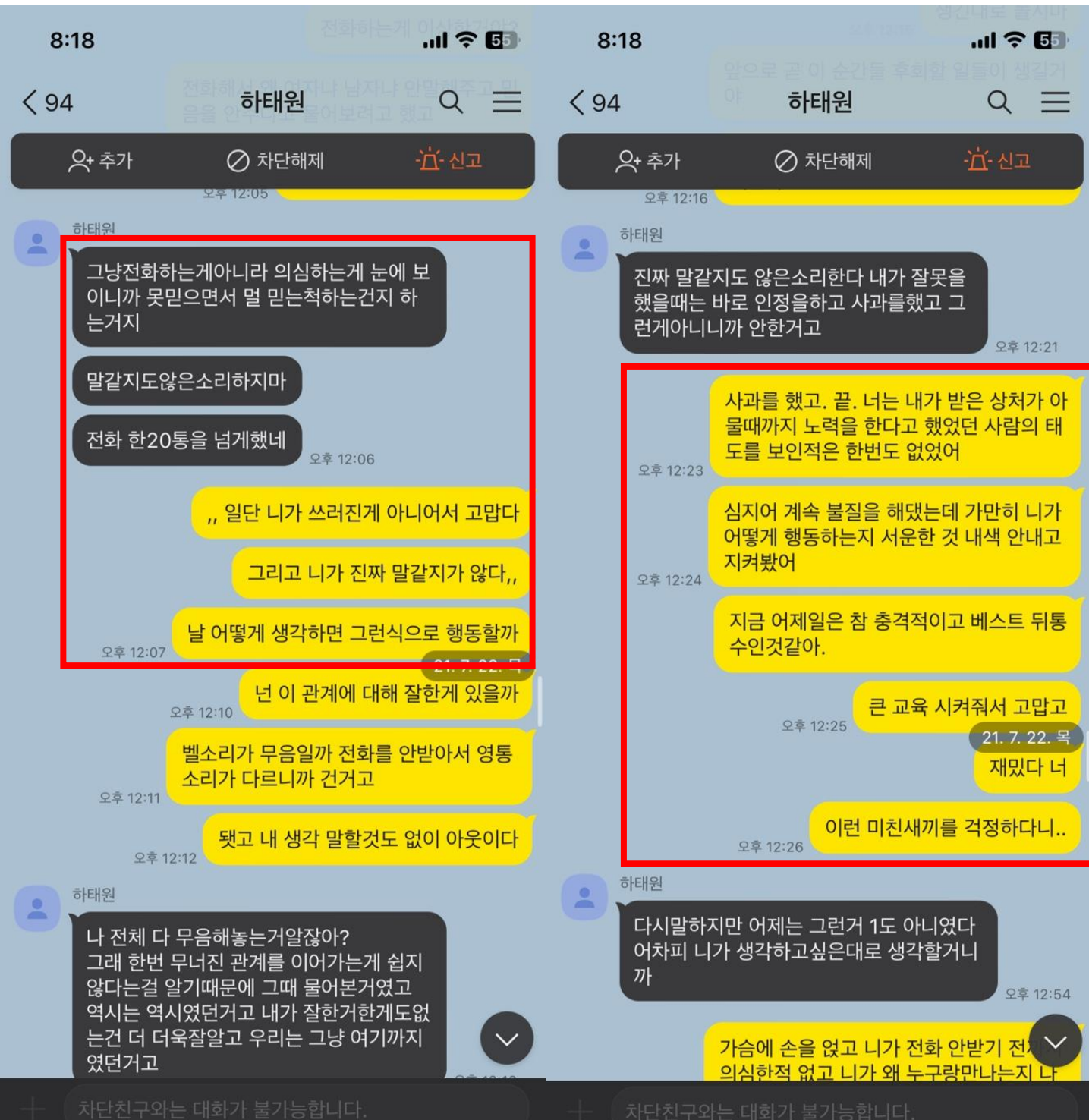


그 다음 피고는 2021.7.21.밤~7.22.아침까지
또 밤새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화와 연락을 일부러 무시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집에 와서 씻는다던 피고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샤워하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쓰러져 있는 건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119에 신고 해야하나, 헬스 선생님께 연락해서 피고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드려야 하나 고민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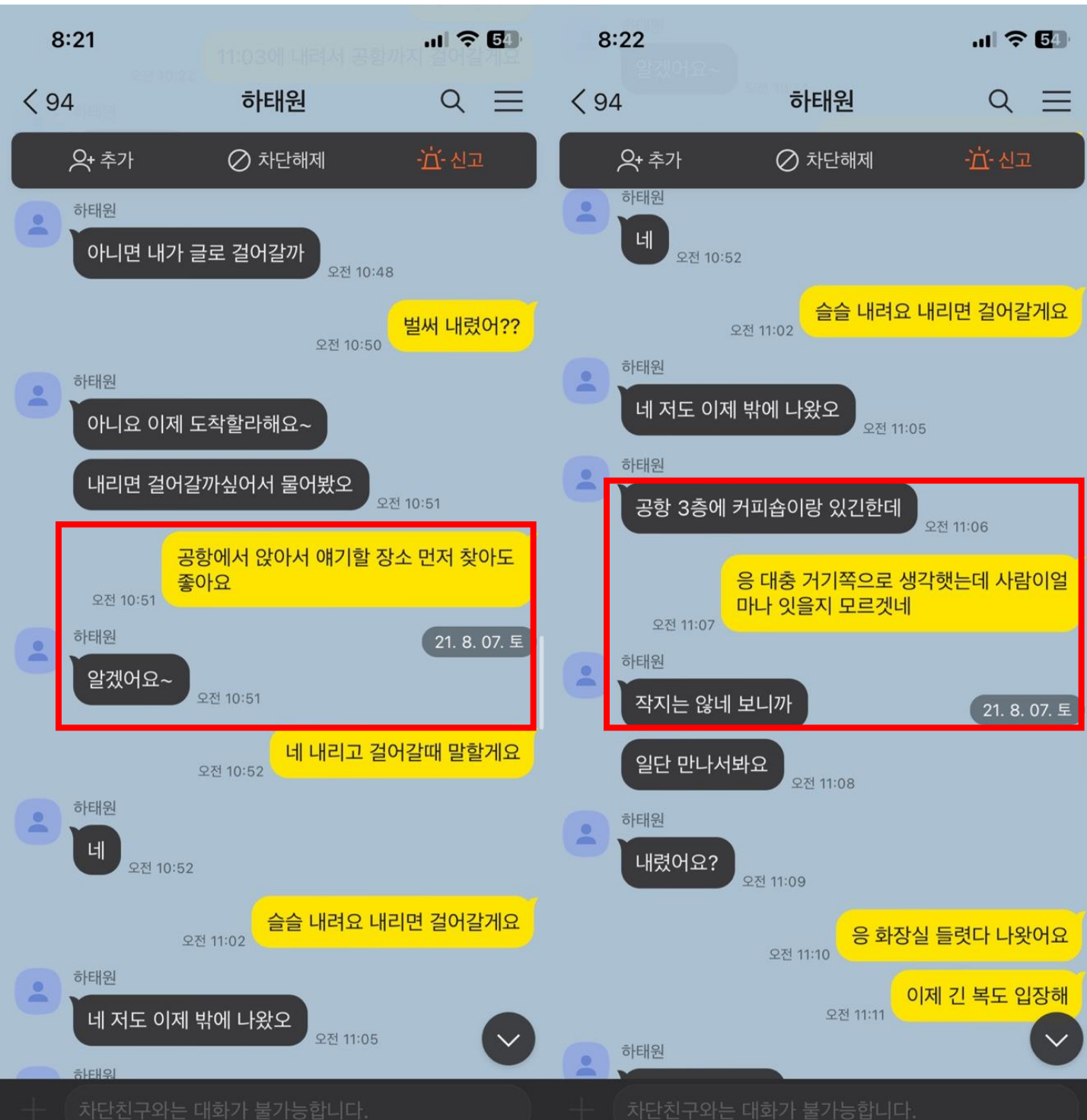
[고의로 밤새 연락두절했던 피고 -2]



고의로 밤새도록 원고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던 피고야 말로 적반하장으로 난데없이 원고를 의부증이 있는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오해’를 하던 것은 피고임에도,
경찰조사와 이 소송에 자꾸 원고가 피고의 여자관계를
오해했다고 허위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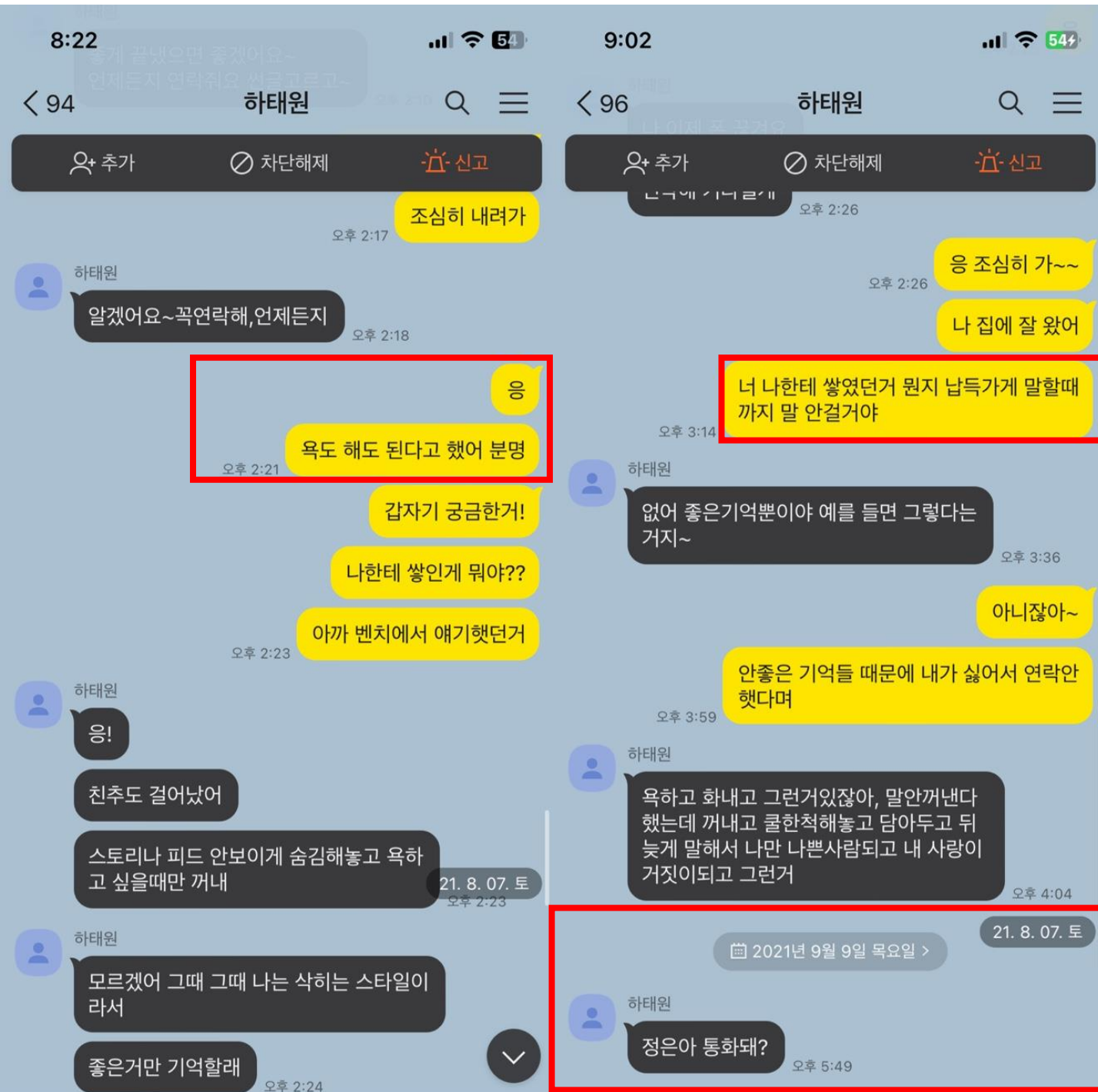
[2021.8.7. 토요일 인천공항에서 만난 원고와 피고]



2021.8.7. 토요일 원고와 피고는
인천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대합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내용이 갑 제12-14호증 입니다.

피고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주말이라 공항에 사람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2021.8.7. 화해가 되지 않았고, 이후로 피고를 차단한 원고]



2021.8.7. 원고와 피고가 대화한 후

“욕도 해도 된다고 했어 분명”,

“너 나한테 쌓였던거 뭔지 납득가게 말할때까지 말 안걸거야”

의 대화내용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화가 풀리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제대로 화해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고는 바로 피고의 모든 SNS를 차단하고 피고와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는 자꾸 화해했다고 거짓주장 하였습니다.

[피고와 마지막 카카오톡 장면]

